

제14강 자살시도자, 이렇게 바뀌었다 3

삶은 끊임없는 과제의 연속, 자살은 영혼의 F학점

나는 한림대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는 2학년 학생으로 교직을 이수중이다. 초등학생 교육에 관해 배우고 있는데 담당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늘 아침, 뉴스를 봤는데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10살 초등학생이 자살을 했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아이가 유서라고 한 문장을 적어 놨는데 그게 뭐지 알아요? '사는게 너무 힘들어서 먼저 갑니다.' 이 거예요. 이 아이의 경우 무엇이 아이를 자살까지 하게끔 만든 것일까요?"

상당히 충격적이었다. 고작 10살 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먼저 간다는 말을 하다니.... 그런데 실제로 요즘 자살하는 연령대는 참으로 다양하다고 한다. 초등학생에서부터 60~70세가 넘은 노인들까지, 무엇이 그들을 자살하게끔 만든 것일까? 일단 사회적인 이유를 무시하지 못 할 것이다. 꼬마아이가 자살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내 머릿속에는 딱 한 가지 생각으로 꽂았다. 아이가 부모의 공부 때문에 힘들었구나, 지나친 강요와 부모님의 등쌀에 못 이겨 결국 자살까지 택했구나.

역시나 그 아이는 맞벌이 부부의 자식이었는데 학교 갔다 집에 오면 태권도학원에 영어 학원, 과외까지 아이의 일과는 10시가 넘어야 끝이 났다고 했다. 고작 10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인데 하루 14시간이 넘는 빡빡한 일정에 로봇처럼 움직여야 했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까. 부모님은 아이에게 오직 공부만을 강요하고,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하긴 커녕 하루에 얼굴 마주보는 시간이 1시간이 채 안되었다고 한다. 우리는 아직 죽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아이를 자살로 몰아넣은 것이다. 이런 지나친 교육열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더욱 커진다. 소위 SKY 라고 말하는 서울에 있는 명문대(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 들어가기 위해 청소년들은 끊임없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간다.

나는 강릉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강원도는 아직 비평준화라 고등학교 들어가는 것부터 경쟁이다. 나 또한 이런 입시증후군에 시달린 학생들 중 한명이고 잘못된 생각을 갖는 사람들 중 한명이었다. 강원도에서는 강릉고, 원주고, 춘천고, 강릉여고, 원주여고, 춘천여고가 소위 말하는 명문 고등학교라 할 수 있는데 나는 강릉여고를 다녔다. 고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내 스스로가 잘났다고 생각을 했다. 어른들은 강릉여고라 하면 모두들 같은 말을 하였

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구나, 잘 컸네, 부모님은 뭐하시니?, 너 같은 딸 뒤서 부모님 참 기쁘겠구나."

하지만 해도 오르지 않은 성적 때문에 공부에 흥미를 점점 잃게 되자 방향 아닌 방향을 하게 되었고, 다가오는 수능에 스트레스만 받고 있었다. 그런 스트레스에 억눌려 평소보다 60점이나 낮은 수능점수를 받게 되었고, TV뉴스에서만 볼 수 있는 상황이 나에게도 들이닥치고 있었다. 부모님 보기가 창피했고, 친구들 보기가 창피했고, 그래도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는 내가 1등이었는데... 다들 날 부러워했고 나 스스로 당당했는데... 이런 점수를 받고 나니 후배들 보기도 창피하고, 선생님들 보기도 창피하고 그냥 점수를 알게 된 후부터 나에게 다가오는 시선이 두려워졌다.

혹시라도 나의 점수에 대해 물을까봐 조바심 났고,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현실에 비참했다. 왜 나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는 것인지 하느님이 원망했고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앉아만 있었고 식욕도 없고 잠도 못자고 하늘만 바라보며 살았다. 정말 이대로 끝내야 되는 것인지까지 생각했다. 달리는 차를 보면 그냥 콧부딪혀서 죽을까, 옥상에서 뛰어 내릴까, 이런 생각도 했다. 엄마아빠가 아니었다면, 아마 나도 TV뉴스에 나오는 성적 때문에 자살한 학생이 되었거나 폐인으로 살고 있을 지도 모른다.

담임선생님과 엄마는 계속 전화통화를 하였다고 한다. 나의 진학에 대해 같이 얘기하고, 내가 받을 스트레스, 엄마가 해줬으면 하는 것, 선생님에게 바라는 것 등 난 몰랐지만 수능이 끝나고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 계속 되었다고 한다. 수능 후 엄마, 아빠가 티내지 않아도 난 느낄 수 있었다. 엄마, 아빠는 모든 부모님들의 부러움을 샀고, 또한 당당하게 딸을 자랑했는데 지금 얼마나 실망하셨을까.... 하지만 그 실망감을 날 위해 모두 감추셨다. 점수를 받고 의기소침에 있는 나에게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최선을 다했으니까 괜찮아. 너 이제 19살인데 뭐. 꼭 좋은 대학만 가야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 딸! 괜찮아, 힘내! 가고 싶은 대학은 못가더라도 니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게 제일 행복한 거니까.. 우리 이제 그만 실망하고 이게 끝이 아니니까 힘내고! 딸! 아자! 아자!"

아빠는 속상하셨는지 자주 술을 마시고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때 정말 평평 울었다. "아빠는 우리 연주가 좋은 대학을 못가도 전혀 상관없어. 단지 좋은 곳을 가서 너의 앞길이 창창하게 펼쳐지길 바래서 그런거야. 이번 일을 통해 아빠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너무 성적에만, 대학에만 신경을 썼다는 것을 느꼈어. 이제 니가 갈 수 있는 대학, 어디라도 아빠가 보내줄 테니까 그렇게 의기소침해 있지 말고. 아빠는 그래도 우리 딸이 최

고야! 우리 딸이 제일 예뻐! 건강하게 바르게만 살면 되 ! 아빠는 딸 믿어 ! "

이날 밤에 계속 생각했다. 이대로 내 삶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앞으로 갈 길이 얼마나 많은데 고작 시험 하나에 무너진다면 이건 내가 아니라고. 이후로 나는 발 빠르게 움직였다. 영어공부를 위해 회화학원도 다니고, 대학진학을 위해 내가 갈수 있는 곳을 정하느라 하루에 10시간이고 컴퓨터 앞에 앉아있었다. 이 때 내가 적어간 대학들을 보고 담임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용의 꼬리가 되는 것 보다 뱀의 머리가 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그래서 오게 된 학교가 한림대이다.

여기 오기까지 많은 고민과 생각을 했다. 많은 의식의 변화로 결국 오게 되었지만 아직까지 나도 이 사회풍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다. 친구들이 모두 서울에 있다 보니 만나게 되면 내 자신이 움츠러들게 되니까. 하지만 내가 그 때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했었다면, 지금 이런 기분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정말 다행인 것 같다. 다시는 그런 미련한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고, 죽음준비교육 강의를 들으면서 자살해서는 안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뇌리에 똑똑히 박아 놓았다. 하지만 나에게 그런 느낌을 들게 하는 것은 그것이 다가 아니었다.

올해 3월에 남자친구가 입대하게 되었다. 매일 하루에 300정도의 문자는 기본, 한 시간 이상의 전화통화, 적어도 한번은 꼭 만났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져서 한 달 반 정도 방황을 하였다. 밤마다 계속 울었고, 웃음이 나오질 않았고, 술에 의존했다. 정말 술 먹고 자고 술 먹고 자고를 반복했다. 그러다 병나서 아프면 학교도 안가고 집에 계속 누워있고. 하지만 그 때 갑자기 번뜩 이런 생각을 했다. 고작 몇 달 못 보는 건데, 나중에 영원히 못 보는 일이라도 생기면 지금의 나로서는 같이 죽겠다는 생각을 하겠구나. 이러지 않겠다고 했는데 또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날 보면 후회했고 지금 오교수님의 책을 읽고 나니 더 후회했다. 하루아침에 죽음으로 평생 자식을 못 보는 부모들도 살아가는데 내가 저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창피했다.

그리고 느꼈다. 몇 달 못 보는 것 때문에 난 이렇게 힘든데 평생 볼 수 없는 자식을 가슴에 묻는 사람들의 고통은 오죽할까. 그렇기 때문에 자살은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남겨진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주기 때문이다. 난 그것을 처음으로 목격했다. 내가 18살 때, 외삼촌께서 고혈압으로 갑자기 쓰러지셨다. 예상치 못했기에 가족들은 모두 안절부절 하면서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다. 하지만 그 때 의사가 나오더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였다. 그렇게 갑자기 외삼촌은 외숙모와, 딸 셋을 둔 채 떠나셨다.

외숙모는 외삼촌의 장례식을 겨우 치르고 이모 댁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고통이 너무나 컸는지..... 거실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자살이었다..... 외숙모에게는 초등학교 3학년의 막내딸과, 나보다 한 살 어린 딸, 그리고 24살인 딸이 있었는데 남편을 잃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같이 따라가셨다. 난 아빠의 장례를 치룬지 일주일 만에 엄마의 장례를 치르게 된 동생들이 너무나도 붙잡아서 같이 장례식장에 앉아 옆을 지켜주었다. 그런데 의젓하게도 나보다 한 살 어린 동생은 울지 않았다. 자기가 울면 자기 동생이 울기 때문에 울면 안 된다고..

내가 울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따라 울기 때문에 울면 안 된다고.. 너무나 안타까웠고 붙잡혔다. 외숙모 조금만 더 참아주시지... 어린 자식들도 이렇게 겨우겨우 참고 있는데.. 조금만 더 견뎌주시지... 하는 생각이 너무 컸다. 동생들이 얼마나 상처 받을지... 충격 받을지... 조금만 더 생각하고... 먼저 간 외삼촌이 얼마나 애도해 하실 지 생각해 보시지..... 너무나도 안타까웠지만 외숙모의 명복을 빌어 줄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걱정되었다. 혹시라도 애들이 다른 마음을 먹지는 않을까 하고 말이다. 다행히 동생들은 바르게 잘 자랐고, 언니는 지금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여 예쁜 딸을 낳았다. 나보다 한 살 어린 동생은 멋지게 여자축구 국가대표가 되었고, 막내는 열심히 학교생활을 잘 하고 있다.

자살은 더 큰 고통을 부른다. 수업시간에 사후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의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그 후로 나는 사후세계를 믿게 되었다. 그런데 자살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과연 빛이 라는 것이 존재할까. 오진탁 교수님의 '자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죽음' 책에서도 볼 수 있다. 불구덩이 속에서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다고,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고! 자살이란 이렇게 더 큰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자살을 한다고 하여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풀린다고 생각하는 것도 오산이다. 삶에서 성실하게 살며 극복했어야 할 어려운 문제들을 자살로 마무리 지었다고 한다면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서 비슷한 문제, 또는 더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즉 과거의 삶에서 소화하고 극복하지 못했던 과제가 연장된 탓이기 때문이다. 끝내지 못한 과제를 자살이라는 방법으로 허겁지겁 마무리 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수강하는 강의에서 F를 받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채수강을 해야 하는 것이라면 어차피 그 문제는 다시 주어질 것이다. 현실에서 도피하려 하지 말고 그 문제를 그대로 즐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퀴블러 로스 또한 우리가 마주치는 어려움은 우리 삶에 주어지는 일종의 과제로서 스스로 수용하고 극복해야 할 것들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사람에게 자살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교수님의 말씀에 나또한 동의한다. 오교수님의 책을 읽다보면 중간에 이런 말이 나온다. "장아메리의 주장대로 인간에게 자살할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면, 살인의 권리 역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살이든 살인이든 다만 대상이 다를 뿐, 생명을 훼손한다는 의미에서는 똑같은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아! 하는 느낌을 받았다. 너무나 맞는 말이기 때문이다. 자살이든 살인이든 어쨌든 생명을 죽이는 것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혹독한 벌을 받는데 왜 자살은 인정해줘야 하는 것일까. 나도 이해 할 수 없는 주장이다. 자살은 우리에게 주어진 존엄한 죽음의 권리를 파기시키는 행위이다. 그럼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있는 행위이다. 자살하는 사람들은 자살하는 순간 그의 과거와 무관해 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또한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 칼로 무를 자르듯 오늘의 삶과 내일의 죽음이 갈라질 수 없다는 말에 동의한다. 자살하는 사람은 자기 삶의 이력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겠지만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요즘 유명 연예인의 자살이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유니, 정다빈, 이은주, 안재환 그리고 최진실까지! 이은주의 자살은 당시 청춘남녀에게 음독자살과 투신자살을 부추기는 최악의 상황을 연출했다고 한다. 나도 그 당시 기사를 읽었던 기억이 난다. 연예인 한명이 자살하면 일반인은 모방 자살을 하게 되어 자살률이 갑자기 몇 배나 증가한다는 기사였던 것 같다. 그들이 자살하는 데는 또 그들만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연예인들은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를 먹고 살기 때문에 오르내림이 심할 것이다. 그 관심이 줄어들까봐 매일매일을 불안하게 살 것이고, 기대에 부흥하기 위해 받는 스트레스 또한 엄청 날 것이다. 그리고 연기자인 경우 작품의 캐릭터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심한 우울증을 앓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은주의 경우 주홍글씨라는 영화에서 심한 노출에 많이 힘들어 했다고 한다. 결국 그것이 자살의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 같다.

우울증은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자살 동기라고 한다. 일종의 정신질환으로 우울증이 심하면 식욕, 성욕, 수면욕, 의욕 등이 사라지게 되고 심해지면 불면증, 소화불량 등이 생긴다고 한다. 며칠 전에 군대에 있는 남자친구와의 전화통화에서 남자친구가 많이 힘들어했다. 훈련 갔다 오고 나서 우울증이 생긴 것 같다고 잠도 못자겠고 입맛도 없고 자꾸 이상한 생각만 하게 되고 여기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미치겠다고.. 자살하는 애들 진짜 많다고 계속 얘기하였다.

밖에 경계근무 서다 선임이 자리비운 사이 장전해서 총으로 자살한 군인도 있다 그랬다. 그래서 겁이 난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천천히 말해주었다. "오빠, 그렇다고 해서 절대 자살하면 안돼 ! 자살은 끝이 아니야. 음..그러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야! 나중에 죽어서 더 고통 받는 것이 자살이야. 그럼 지금까지 오빠가 살아온 인생이 다 헛것이 되는 거야. 잘 죽을 수 있어야 가장 행복한 거래!! 오빠! 절대 안돼, 자살은 아니야 ! 알았지?"

오빠가 웃으면서 대답했다. "하하하, 너 오진탁 교수님 강의 듣는다 그랬지? 나도 자살예방 교육 들었거든? 나도 잘 알고 있어 바보야 ! 걱정마. 절대 그럴 일 없어 ! " 나도 웃음이 나왔다. 이 강의를 나에게 추천해 준 것이 오빠였기 때문에 오빠도 누구보다 죽음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했을 텐데 내가 괜히 오버해서 말한 꼴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의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는 순간이었고, 오빠도 수업을 열심히 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노인들의 자살도 급증한다고 한다. 자식들이 부양하지 않으려고 버려 살기 싫어지거나, 당신의 재산 때문에 싸우는 자식들을 보고 회의감을 느껴 자살하려는 노인 등 외로운 노인들의 자살이 많아지고 있다. 갑자기 할머니 생각이 났다. 할머니도 14년 전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혼자 사셨다. 그러다가 친척동생들과 함께 사는데 난 할머니에게 잘 연락을 하지 않는다. 그러다 가끔 엄마의 부추김으로 할머니 집에 가면 할머니는 한 없이 반가워하시고 짬뽕돈을 꺼내 내 손에 꼭 쥐어주셨다. 할머니도 많이 늙으셨던데.. 혹시라도 많이 외로워하시다가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떡하나 갑자기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문득 핸드폰을 열고 전화를 하였다. 할머니는 웬일이냐고 너무나도 반가워 하셨다. 다음 주에 집에 내려가게 되면 할머니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와야겠다.

또한 게임에 빠져 현실과 구분하지 못하고 자살을 하는 사례는 몇 년 전부터 계속하여 뉴스에 보도되었다. 심지어 자살사이트를 만들어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모여 동반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어 큰 충격을 주었다. 지금은 그런 사이트를 금지하였지만 지금도 어디선가 은밀하게 그런 사람들끼리 자살 얘기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난 생각한다. 죽음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자살을 택하는 사람들,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자살을 택하는 사람들, 사회를 탓하면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영원히 결별하기 위해 자살하는 사람들 등등

모두 딱 한번만 생각을 한다면, 아니 딱 한번만 죽음에 대해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들은 모두 지금 열심히 살고 있지 않을까. 영화 쿵푸 팬더에서는 이런 말이 나온다.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a mystery. Today is a present. 어제는 과거이고,

내일은 알 수 없지만, 현재는 선물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을 버리려 하지 말고 기쁘게 받고 즐겼으면 좋겠다.

죽음에 대한 무지 : 언론정보학부 윤양

'자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죽음' 을 읽으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다. 책의 내용이 슬퍼서일까? 아니다. 물론 책에 소개된 자살한 사람들의 사연은 너무 안타까웠다. 하지만 눈물을 흘린 진짜 이유는 힘들어하던 나의 옛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난 자살에 대해 자주 생각해왔고 자살을 시도하는 장면을 상상한 적이 많았다. 특히 내 편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될 때, 아무도 날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죽고 싶단 생각을 했었다. 내가 자살에 대해 처음으로 심각하게 생각해본 때는 초등학교 3학년 때였다. 그 당시 난 베란다에서 창 밖을 내다보며 뛰어내리면 어떨까 생각하느라 한참을 서있기도 했다. 하지만 난 자살을 하기엔 겁이 많았고, 가족들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면 이래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맘을 다잡곤 했었다.

두 번째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때는 고등학교 1학년 때였다. 아버지가 보증을 섰던 것이 잘못되어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을 때였다. 이전까지는 힘이 들어도 부모님께 의지하며 그럭저럭 버티나갈 수 있었는데 부모님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난 살아갈 용기를 잃었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때 상황이 조금만 더 심각했어도 우리 가족은 동반자살을 했을 지도 모른다. 세 번째로 자살충동을 느낀 때는 작년 이맘때쯤이었다. 나는 재수를 했다. 그런데 수능시험의 결과가 고3 때보다도 훨씬 좋지 않게 나왔기에 많이 고통스러웠다. 그냥 이것은 시험일 뿐이라고 맘을 다잡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맘 고생으로 힘들게 보냈던 1년이 그냥 버려진 것만 같아 너무 아까워서 잠도 잘 수 없었고, 가족들은 날 위로해주는거 커녕 한심하게 보아 큰 모욕을 느꼈다.

사실 그 당시 나는 패배의식에 심하게 져어있었기 때문에 따스한 위로 한 마디 해주지 않는 가족을 원망하면서도 반대로 나 자신은 위로를 받을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했었다. 나는 고3 때보다도 잘 봐야 한다는 압박감이 너무 커서 시험을 못 봤다. 시험을 못 봤으니 단순히 삼수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었다. 나는 자신감을 잃고 앞으로 어떠한 일도 헤낼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래서 의욕이 없어지고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힘들게 느껴져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침대에 누워있기만 한 채로 며칠을 보냈었다. 그러다 너무 화가 치밀고 내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져서 자살을 하려 했다. 방법을 찾다가 투신자살은 길가던 많은 사람

들이 망가진 내 시신을 보게 되는 것이 맘에 걸려 내키지 않았고, 손목을 긋는 등의 방법은 통증이 심할 것 같아 싫었다.

그래서 생각하게 된 것이 목을 매는 것이었다. 벨트를 꺼내어 내 방에서 목을 매고 죽으려 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은 행동이었다. 자살한다는 것은 어떤 방법이든지 다 고통스러운 일인데 그 중에서 덜 고통스럽고 더 고통스러운 것이 대체 어디 있던 말인가? 난 그때 죽지 않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갑자기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번뜩났기 때문에 목을 매려다 멈추었다. 나는 아직 젊고 하고 싶은 것도 참 많은데 이렇게 죽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했다. 자살하려던 이유는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얽혀있었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중에는 내가 이렇게 죽어버리면 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충격 받고 미안해할 것이란 생각 때문이기도 했던 것 같다.

그런데 그 순간 내가 나를 버림으로써 남들이 나에게 대해 미안함을 갖게 된다고 해서 과연 무엇이 달라질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냥 나만 죽는 것뿐이다. 이러한 생각이 미치자 난 자살시도를 멈추고 평평 울었다. 내 자신의 충동적인 행동에 대해서 많이 놀랐기 때문이다. 쾌활하던 내가 이렇게까지 변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나는 그 뒤로 이렇게 아무 것도 안하고 방 안에 처박혀 있다가는 점점 나쁜 생각만 하게 되고 나 자신을 제어할 수 없게 될 것 같아 밖으로 나와 자살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애썼다. 혼자서 여기 저기 돌아다니기도 하고, 보고 싶어했던 책을 사서 읽고, 노래방에 가서 고래고래 악을 쓰기도 했다. 또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일부러라도 친구들을 만나서 웃으려는 노력을 하고, 평소에 얘기하기 어려웠던 힘든 속내를 털어놓기도 하면서 극복했다.

책을 읽으니 그때가 생각나서 많이 슬펐고, 그땐 내가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깨달았다. 그야말로 무지였다. 죽음에 대한 무지. 그때까지는 장아메리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죽으면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것 같았다. 그 동안 나는 죽으면 끝이라 생각해왔고 사후세계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뿐인 인생을 잘 살아야 한다고 다짐해왔었다. 그러나 이것은 반대로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무언가 어긋나서 힘이 들거나 한 번뿐인 인생에 미련이 없다면 죽음으로써 모든 것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것 같다.

책에서 소개된 한국자살예방협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왔다는 글은 내가 올린 질문을 보는 듯 했다. 질문자는 자살하면 안 되는 이유는 가족과 친구가 슬퍼하니까, 생명은 소중한 것이니까,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나보다 훨씬 힘든 인생을 사는 사람도 열심히 살아가

니까 하면 안 된다고 들었다고 했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나도 이렇게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의문스러운 점이 많았다. 삶이 괴로워서 죽고 싶으면 자살해도 되는 것 아닐까? 행복도 고통도 다 싫증나고 귀찮아서 더 이상 삶에 미련이 없으면 자살해도 되는 것 아닐까? 한 번 뿐인 인생에 더 이상 미련이 없는 사람은 자살해도 되지 않을까? 슬퍼하거나 울어줄 사람이 없다면 죽어도 되는 것 아닐까?

하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자 자살을 왜 하면 안 되는 것인지 좀더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 자살은 더 큰 고통을 가져올 뿐이니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사실 난 이 책을 읽기 전에, 그리고 수업을 듣기 전에 이미 자살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내 자신과 약속을 했었다. 지난 날 자살을 하려다가 마음을 고쳐먹은 뒤로 다시는 이러한 생각을 하지 말자고 굳게 다짐했던 것이다. 하지만 왜 자살을 해서는 안 되는지 맘에 확실히 와 닿지가 않아서 답답했다. 왜냐하면 그냥 막연하게 자살은 옳지 못한 것이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기에는 자살충동을 막는 데 별다른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내 자신에게나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도 자살을 막기 위한 근거로 보기엔 항상 부족하다고 느꼈다.

정말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다들 단순히 생명은 소중한 것이니 함부로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식의 말로만 자살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로 알고 있으니 자살이 곳곳에 만연하는 것은 어찌면 당연한 결과다. 또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생각한다는 것은 눈으로 볼 수도 쉽게 체험해 볼 수도 없는 것이며 종교의 유무에 따라서 입장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나 역시도 아직까지도 사후세계가 과연 있는 것인가 궁금하다. 나는 종교가 없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믿지 않는다. 그러나 영혼은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육신을 떠난 영혼이 머무는 곳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내가 영혼이 있음을 믿게 된 때는 중학교 1학년 때였다. 외할머니가 물에 빠지셔서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어느 날 외숙모의 꿈 속에 외할머니가 나타나셨다. 외할머니는 부엌의 찬장을 막 뒤지셨다는데 그 당시 외숙모는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꿈 속에 나와 이상하긴 했지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그 일을 잊고 계셨다.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부엌 찬장을 정리하다가 외할머니의 통장을 발견하였다. 그제서야 외숙모는 지난 꿈이 떠올랐다고 한다. 나는 외할머니가 통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외숙모의 꿈 속에 나타나셨다고 믿는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계기로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었다.

솔직히 나는 영혼의 존재도 믿고, 자살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했지만 힘들 땐 여전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그럴 때 마다 떠올리는 말이 있는데 그 것은 소설 속의 짧은 대사 몇 줄이다. 공지영의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라는 소설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우리는 죽고 싶다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죽고 싶다’라는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뜻이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다시 한 번 뒤집어 생각하면 ‘다시 잘 살고 싶다’라는 뜻이 되므로. 그래서 우리는 ‘죽고 싶다’라고 하지 말고 ‘다시 잘 살고 싶다’라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이 내용이 소설에서 한 페이지도 안 되는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제일 가슴에 와 닿았고 힘들 때마다 되새기게 된다. 힘들어하는 친구를 위로할 때도 종종 이 얘길 해주곤 했다. 이제는 이것뿐만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니며 자살은 고통을 더할 뿐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으니, 더욱 진실한 말을 해줄 수 있어서 다행이다. 앞으로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욱 굳건해지고 성숙해져서 참된 삶과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